

# 관광은 미래 생명줄... 볼거리·알거리·놀거리 만든다

**관** 광산업은 미래를 먹여 살릴 든든한 생명줄이다. 세계관광관광협회(WTTC)의 발표를 보면 2025년에는 관광산업이 전 세계 GDP의 17%, 관광 관련 고용 규모는 약 3억3,0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이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워가고 있는 이유이다.

이 같은 시장은 국가 뿐 아니라 국가 내 지역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각 지역 역시 문화와 관광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오래동안 전례의 관광자원인 국립공원 내장산을 중심으로 한 '시계형 체류형 관광도시' 만들기에 주력해오고 있는 정읍시 노력도 이미 연장선에 있다.

시는 특히 고차제 있는 '가을 단풍 환절 관광지'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가을뿐 아니라 사계절 내내 '볼거리·알거리·놀거리'를 관광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 시대 관광은 볼거리, 놀거리, 알거리, 먹거리, 피할거리 등 여러 가지 '거리'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고 연계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강점기 시장은 '세계적으로 정읍사와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내장산국립공원 등 정읍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역사·문화·생태·체험관광 시책을 통해 '거리'가 다양하고, 품격을 갖춘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4차 산업혁명시대 감성 자극 볼거리를 만들어라

유서 깊은 역사 자원을 재도로 한 볼거리 만들기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백제가요 관광지와 대장군 테마파크 조성사업이다.

정읍시 관광지 조성사업 총사업비는 300억원, 규모는 신정동과 용산동 일원 21만5,000여㎡이다. 정읍시가요 박물관을 비롯 정읍사 여인장, 한식 체험관, 정원 등이 들어선다. 지난해 5월 11일 기공식을 가졌고, 내년에 간여 공시 마무리와 함께 콘텐츠를 채워 2019년 상반기 본격 개관할 예정이다.

대장군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조선시대 의녀(醫女)인 대장군의 고령을 테마로 한다. 신내면 장궁리 옛 장급초등학교 부지에 대장군 테마관과 증정공사 체험관, 대장군 직판장, 대장군 정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토지 보상과 지방채정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를 마쳤다. 내년 실시할 예정인 용역 을 거쳐 2019년 착공, 2021년 완공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국비 등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즐거면서 배운다~ 배움거리(알거리) 구축도 착취



대장군 테마파크 조성사업

그저 높고, 빅가만 하는 관광사태는 자났다. 높고, 즐기면서 체험하고 배우는 관광이 대세이다. 맥을 같이해 역사와 문화의 고장 정읍의 정체성을 살린 사업들이 눈에 띈다.

먼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의 보존 태인 내장산 용굴암·은적암 탐방로 복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용굴암 탐방로를 개설했고, 올해는 은적암 탐방로 개발에 나선다.

감오동하농민혁명 발상지로서의 사업 추진도 주목받고 있다. 핵심사업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조성사업이다. 덕천면 하하리 횡도면 전역지 일원 30만5,000㎡ 규모이고 총 사업비는 400억원이다. 광역 국비사업장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가 지방비 부담을 요구,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당초 확장대로, 전역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로면 을 9월 이후 첫 삽을 뜰 것으로 기대된다.

역명정신 계승발전의 핵심은 용두현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념제 50주년이 되는 '빛깔을 촛불로, 정읍을 세계로'라는 주제로 4대 있게 진행했다. 앞으로 동학농민혁명 미래 50년 준비 일환으로 세계시진여행 포럼 유서와 국제 학술대회, 용두현 관중 마라톤대회 개최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어 2, 3단계 중장기 계획으로 민주주의 관련 국제학 대회 EXPO 개최, 국제화와 다문화센터 제2차 방영도 검토 중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백제가요 정읍사 여인의 환상한 사랑을 테마로 한 정읍사문화제도 매년 가을이면 많은 관광객들을 정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매년 10월 말 단풍시즌과 맞물려 전국 관광객들을 불러 모은다. 올해(제28회) 정읍사문화제는 '천년의 가요집, 사랑으로 꽃 피다'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 ▲정읍에 가면 흥과 즐거움이 넘친다~ 즐길거리 만들기 향상

전북도의 도립관광 정책에 맞춰 내장산리조트 등 내장산 국립공원 중심의 정읍을 시계형 도립관광의 중심지로 사업도 이어지고 있다. 전라북도 장역과 연계한 관광종합안내 센터와 정보 안내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자율이용시설 2개소와 맛집, 생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특색있는가맹점 10개소도 지정했다.

내장산리조트 골프장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신정·용산동 일대 9만5,000㎡에 총사업비 500억원이 투입된다. 대공제 18홀의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갖추게 된다. 내년 5월 토목공사를 마치고 6월부터 사업 라운딩을 거쳐 9월에 개장할 예정이다.

내장산 문화관광 내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은 모두 4사 이트(카라반 3동, 글램핑 6동, 오토캠핑 2면, 일반캠핑 17



내장산국립공원리조트

- '볼거리' 대장군 테마파크 조성
- '알거리' 용굴암·은적암 탐방로 개설
- '즐길거리' 내장산 관광사업 진행
- '질거리' 대형숙박시설 확충 수력

면)와 정기사업 등 기존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관련하여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캠핑 명소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빛깔의 계절 4월에는 정읍한편 어린이축구장 일원에서 빛꽃축제가 열린다. 올해도 국내·외 관광객 20만여명이 찾아와 봄의 향연을 즐겼다. 특히 생고을 시장과 인근 사내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 ▲쾌적하고 편안한 걸거리 확충도 가속

한편 정읍 관광에서 다소 아쉬운 것이 숙박시설 부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 중이다.

우선 옛 내장산관광호텔 자리에 10층 280실 규모의 특급 호텔을 신축할 예정이다. 시정업체인 래동그룹 김진호 회장은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부지 협의가 끝난 만큼 건축 용역사를 선정해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과 건축 설계를 동시에 추진, 빠른 시일 내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 12월 내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내장산리조트 조성사업 일환으로 대형숙박시설과 펜션, 여관 등의 숙박시설 확충에도 주력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용굴암 탐방로 정비

I wish to be a host of 2023 World Scout Jamboree in Saemangeum, Korea!

**기회의 땅, 대한민국 새만금에서 2023 세계잰버리 유치를 기원합니다.**

더 큰 열정으로 6만 군민의 뜻을 모아

**창의적이며 감동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힘차게 뛰겠습니다**

**부안군의의회**